

Market Report

2024 3Q | NO.45

Contents

- 02 2024.3Q 부동산 ISSUE PART
- 03 [서울시] 중·소형 빌딩 시장동향
- 04 [서울시] 중·소형 빌딩 거래분석
- 05 [권역별] 중·소형 빌딩 거래분석
- 06 [서울시] 중·소형 빌딩 유형/주체별 거래분석
- 07 중·소형 빌딩 수익률 분석
- 08 Hot place 거래사례 분석 [한남동]
- 09 Hot place 거래사례 분석 [한남동]
- 10 Hot place 거래사례 분석 [한남동]
- 11 [RK Research Reference Page]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는 투자전략]

2024년 상반기, 정부의 금융 정책 및 경기 부양 기조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경쟁으로 인해 상업용부동산 시장, 특히 꼬마빌딩 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8월까지 거래량이 평년 이상으로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하여 대출 요건 및 금리가 강화되어 꼬마빌딩 매매시장 거래량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와 정부의 금융 정책 (DSR 규제 완화, 고정 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꼬마빌딩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8월까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꼬마빌딩 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꼬마빌딩은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관리 및 운영의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었다.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하여 꼬마빌딩 투자는 단순히 임대수익을 얻는 것을 넘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에셋파킹 (asset parking)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 규모가 꼬마빌딩 투자 규모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다주택자가 되는 것보다 꼬마빌딩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꼬마빌딩 투자는 아파트 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금융 지원을 받기 용이하다는 점 또한 투자 수요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하기간 동안 주거용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는 곧 꼬마빌딩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대출 요건 강화와 금리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꼬마빌딩의 거래량은 줄어든 수밖에 없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유럽의 에너지 위기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요인들과 얹힌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채권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꼬마빌딩 시장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며,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매수 측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도 측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여 매도호가를 유지 및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매수 측과 매도 측의 가격 간극이 커지면서 거래량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 조달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꼬마빌딩 시장 거래량은 당분간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조에 따라 결국 국내 기준금리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출금리 강화 정책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꼬마빌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침체에 흔들리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금리 변동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중·소형 빌딩 시장동향



서울시 총 거래건수

801 건 ▲ 12.0% (전기대비)

서울시 총 거래규모

5조 581억 원 ▲ 14.3% (전기대비)

평 균 (임대)수 익 률

3.27% ▲ 0.16%p

기준금리

3.25% (▼ 0.25%p)

국고채(3년물)

2.87% ▼ 0.56%p

회사채(3년물)

3.45% ▼ 0.43%p

*(임대)수익률=연간임대료/매매가격(거래당시)



2024.3Q 중·소형 빌딩의 거래량은 총 801건으로 2022.3Q(730건) 이후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으로 전년동기(605건) 대비해서 32.4%, 전분기(715건) 대비해서 12.0% 증가하였다. 장기간의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과 주요권역의 합리적인 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3Q 중·소형 빌딩의 거래규모는 총 5조 521억원으로 전년동기(3조 4229억) 대비해서 47.8% 증가하였고, 전분기 대비해서 14.3% 증가하였다. 거래 규모별 거래에서는 50~100억 규모의 거래는 5.7% 증가하여 가장 낮은 폭으로 조사되었고, 100~200억의 규모의 거래는 42.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주요 권역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05건이 거래 되었다. 전년동기(71건) 대비해서 47.9% 상승하였고 전분기(93건) 대비해서 12.9% 상승하여 중소형빌딩 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분기 대비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동구”로 전분기(20건) 대비 140% 증가하여 48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물가 및 금리 등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민감도가 높아진 투자자가 보다 안정적인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RDB(리얼코리아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4.3Q 자산 유형별 거래비율은 투자형(개발, 시세차익 목적) 55%, 수익형(임대수익 목적) 28%, 사육형(직접사용 목적) 17%의 비중으로 “투자형”과 “사용형”은 증가하였고 “수익형”은 감소하였다, 매입 주체별 거래에서는 법인이 87%, 개인이 13%로 법인으로 매입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RDB를 기반으로 실제 거래 사례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4.3Q 서울시 중소형빌딩의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0.16%p 상승한 3.27%로 조사되었다. “기준금리”, “국고채”, “회사채”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시장(대출) 금리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어 고금리의 부담이 여전한 상황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매물 위주로 거래되어 평균수익률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중·소형 빌딩 거래분석



2024.3Q 중·소형 빌딩의 거래량은 총 801건으로 2022.3Q(760건)이후 최대 거래량으로 조사 되었으며, 전년동기(605건) 대비해서 32.4%, 전분기(715건) 대비해서 12.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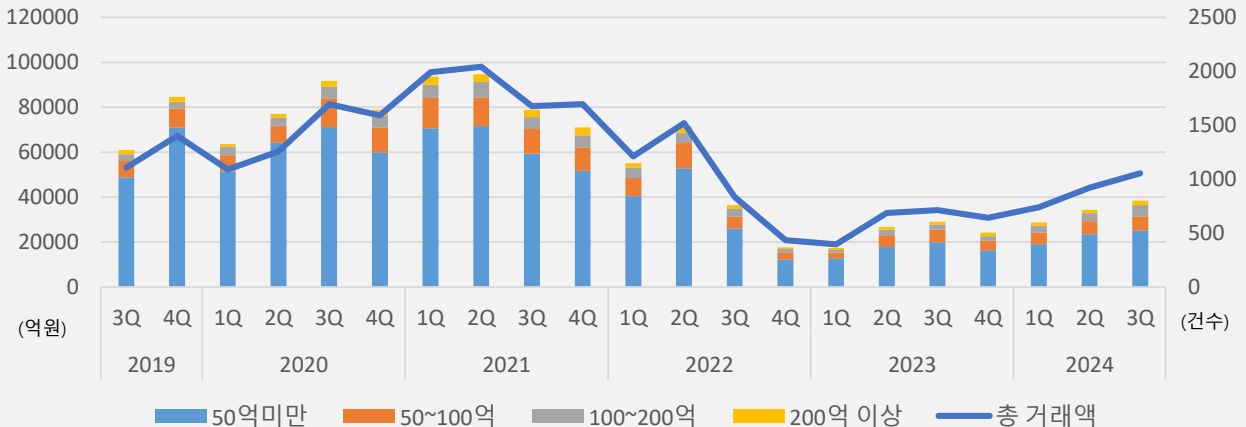
2023.3Q의 거래량을 월 단위로 살펴보면 7, 8월에는 증가하였으나, 9월의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 대비 저렴했던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었고, 은행권의 시장(대출)금리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권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로 선제적으로 시장금리를 인하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의 속도 조절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대출 정책이 다시 강화되어 투자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매도인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매물의 호가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높이의 차이가 발생하여 9월 거래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매수 심리가 회복되어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금리 인하가 제한적이거나, 강화된 대출 정책이 유지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높이 차이가 지속되어 당분간 거래량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2024.3Q 중·소형 빌딩의 거래 규모는 총 5조 521억원으로 전년동기(3조4229억) 대비해서 47.8% 증가하였고, 전분기 대비해서 14% 증가하였다. 규모별 거래량에서는 100~200억의 건수가 전분기대비 42.5% 증가하여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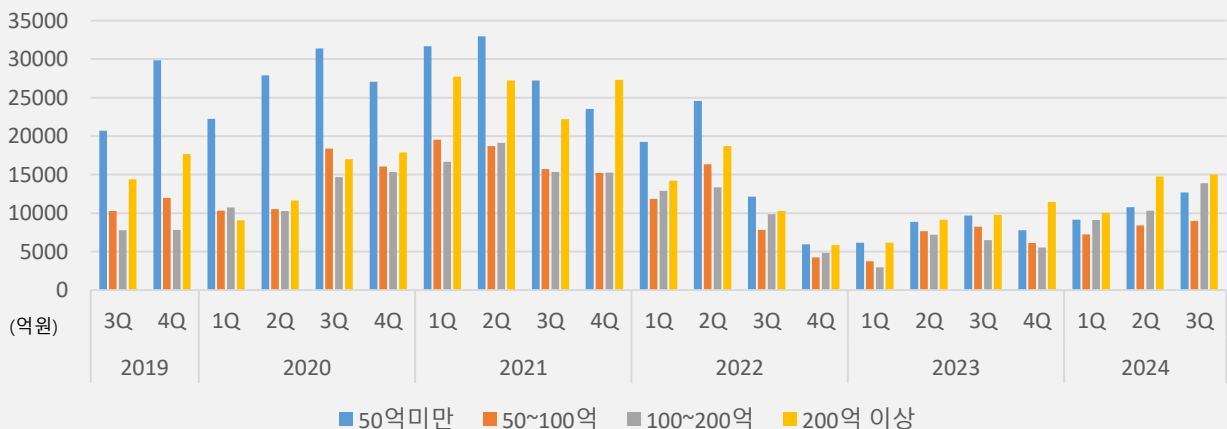
서울시 거래(건수) 추이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거래(규모) 추이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권역별] 중·소형 빌딩 거래분석



2024.2Q 주요권역 중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05건이 거래 되었으며, "용산구" 77건, "마포구" 54건, "성동구" 48건, "송파구" 37건, "서초구" 27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래량 가장 많은 "강남구"의 거래건수는 전분기 대비 93건->105건 12.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71건)에 대비해서 47.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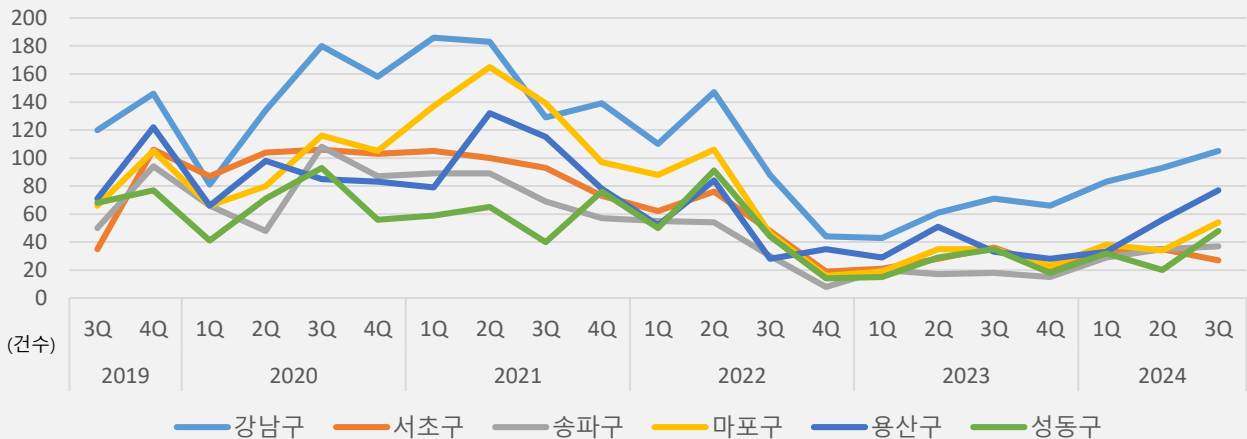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가장 많은 곳은 "성동구"로 20건->48건으로 1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리 인하에 민감한 중·소형 빌딩의 투자수요가 HOT한 성수동 일대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의 경우 전분기 대비 35건->27건으로 22.9% 감소하였다. 이는 핵심권역인 강남구에 투자수요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2순위로 밀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강남구의 합리적인 매물이 희소해지고, 호가가 높아진다면 "서초구", "송파구"로 투자자의 시야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투자지역인 "강남3구", "마용성" 6개구의 거래규모는 3조 1979억으로, 서울시 전체 거래규모인 5조 581억의 63.2%를 비중으로 전분기(58.4%),에 대비해서 확대되었다. 이는 주요권역으로 투자가 보다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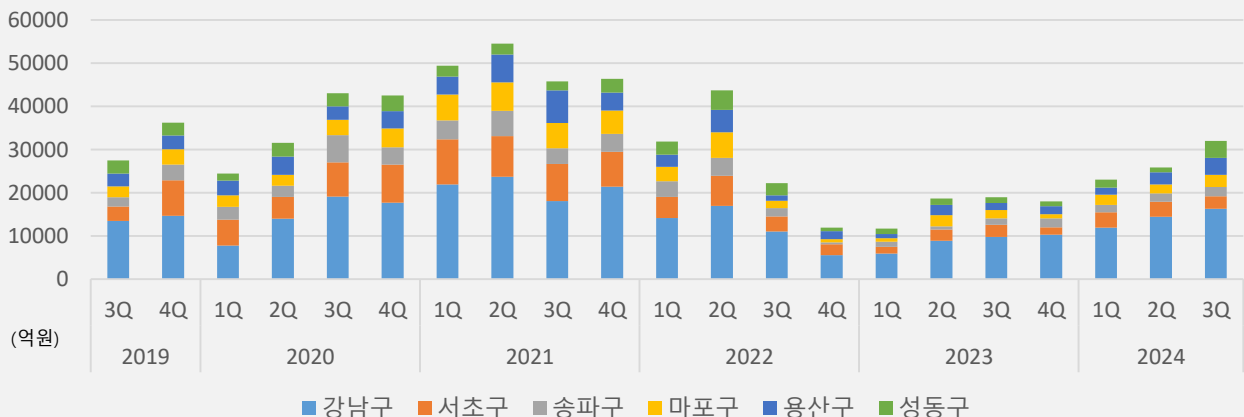
권역별 거래건수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권역별 거래규모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형 빌딩 유형/주체별 거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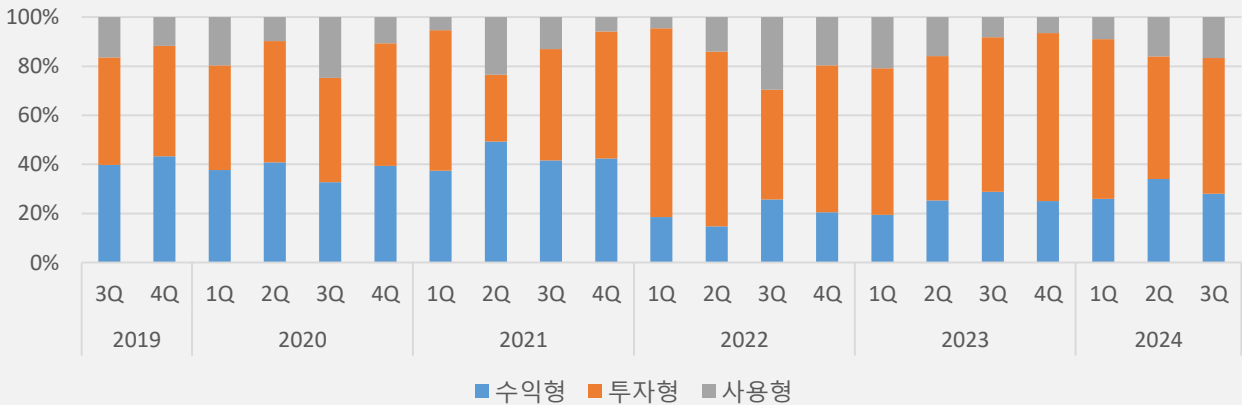
RDB(리얼코리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산유형별 거래비율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4.3Q 서울 중소형 빌딩의 거래에서 투자형(개발, 시세차익 목적) 55%, 수익형(임대수익 목적) 28% 사옥형(직접사용 목적) 17%의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투자형”의 경우 전체비중의 55%로 전분기 대비 5%p 증가,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8%p 감소하였다. 이는 7, 8월 금리인하의 기대감으로 시장(대출)금리가 선제적으로 낮아지면서 비교적 금융비용의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성” 부동산의 거래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금리 기조였던 2022.1Q “투자형” 매물의 비중이 77%로 많은 비중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고금리 기조에 금융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수익형” 거래의 비중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4.3Q 중·소형 빌딩시장의 매입주체는 법인이 87%, 개인이 13%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법인형태의 매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 할 경우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LTV(담보인정비율)이 높아 개인투자자도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매입하는 추세이다. 다만 주택을 매입하거나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증가되고, 법인세와 양도세가 중복과세 되는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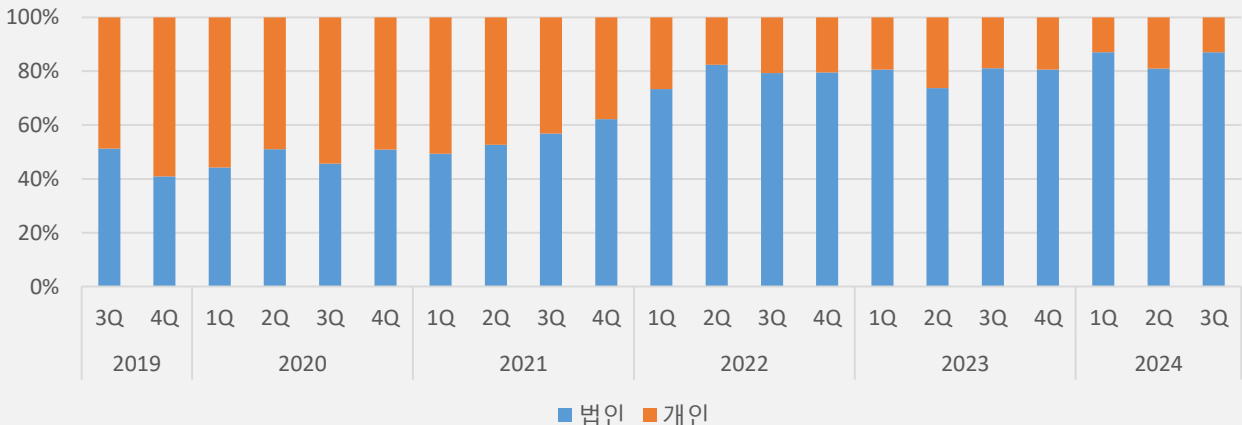
자산유형별 비율

자료출처: RDB



매입주체별 비율

자료출처: RDB



RDB(리얼코리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4.3Q 서울시 중·소형빌딩의 수익률은 전 분기 대비 0.16%p 상승한 3.27%로 조사 되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0.44%p가 상승 하였으며, 5년 평균(2.91%) 대비해서도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고금리 기조에 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 "수익형 중·소형빌딩"의 수익률은 2.5%에서 3.11% 사이에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출이자가 임대료의 수입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요구수익률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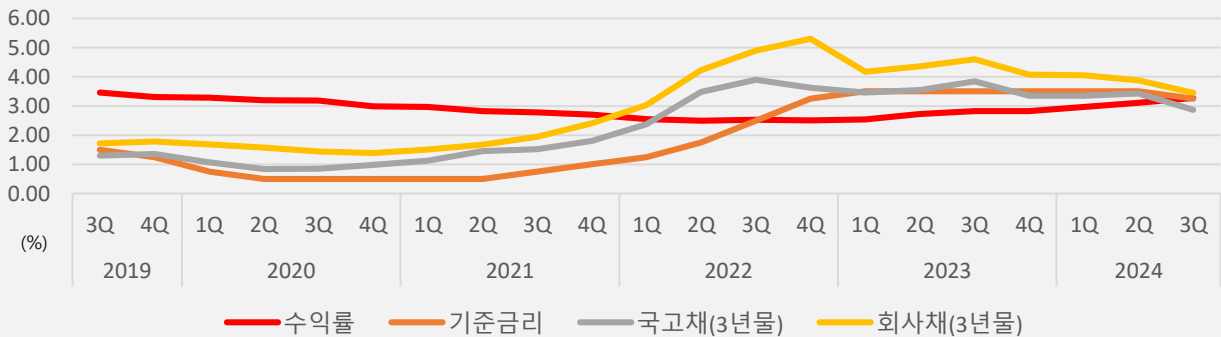
2024.3Q "수익률추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2.3Q "수익률"과 "기준금리"가 교차하는 중요한 변곡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시 중·소형 빌딩의 거래량은 1,486건->760건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49.8%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기준금리와 수익률의 연관관계가 부동산거래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2024.3Q에는 기준금리가 한차례(0.25%p) 인하하여 3.25%로 서울시 거래평균수익률(3.27%)이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시 "국고채", "회사채", "예적금" 등의 수익률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대수익과 지가상승으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거래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의 방향과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고채는 2.87%로 전년동기(3.84%) 대비 0.97%p 하락하였으며, 회사채는 3.45%로 전년동기(4.6%) 대비 1.15%p 하락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크게 변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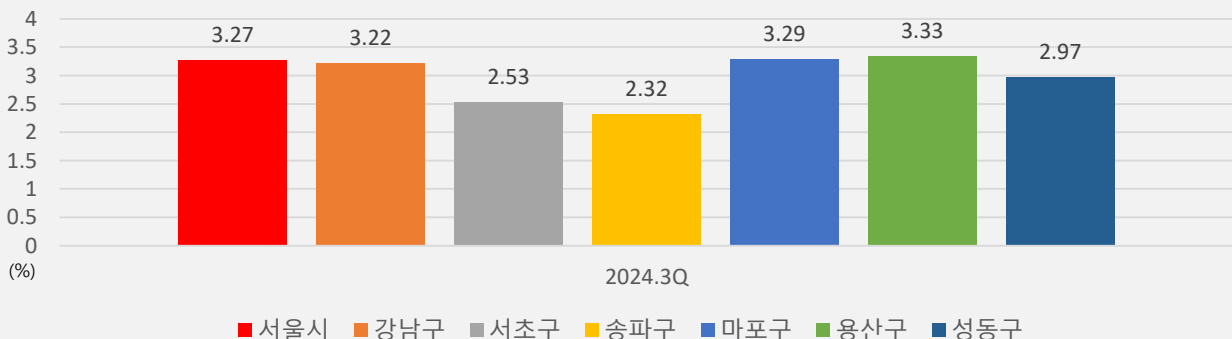
수익률 추이

자료출처: RDB
e-나라지표



2024.3Q 주요권역 수익률

자료출처: RDB



*(임대)수익률=연간임대료/매매가격(거래당시)

Hot place 거래사례 분석 [한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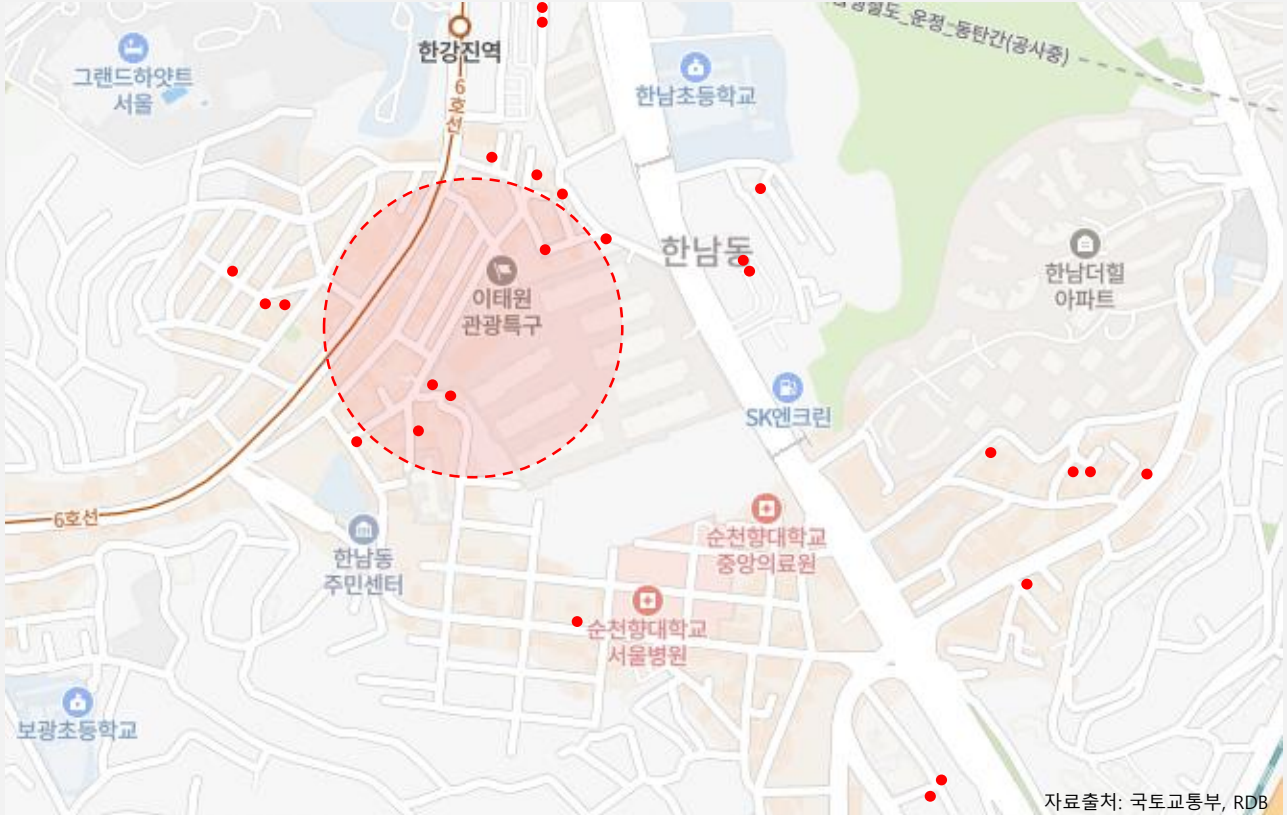


[한남동 2023.3Q~ 2024.3Q 매매사례 분석 결과]

1000억 미만 중.소형 빌딩 총 거래 건수 25건 / 대지 3.3m² 평균 매매 금액 약 **10,885만원**

접도 폭 **12m 미만** 도로 거래건수 23건 / 대지 3.3m² 당 평균 매매 금액 **10,549만원**

접도 폭 **12m 이상** 도로 거래건수 2건 / 대지 3.3m² 당 평균 매매 금액 **14,746만원**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RDB

시세 해당 기간 한남동 지역의 전체 거래 건수는 총 25건 (집합건물, 지분거래, 한남 뉴타운 지역 제외) 거래 되었으며, 대지 3.3m² 당 평균 매매 금액은 약 10,885만원 수준에 거래되었다. 이 중 12m 이상 도로를 접한 건물의 거래 건수는 2건이며 대지 3.3m² 당 평균 매매 금액 14,746만원, 12m 미만 도로를 접한 건물의 거래 건수는 22건이며 대지 3.3m² 당 평균 매매금액은 약 10,549만원에 거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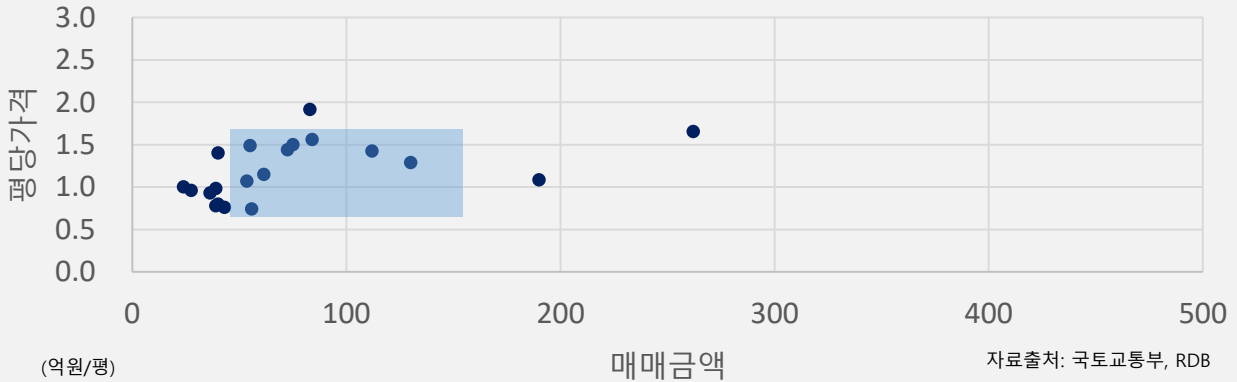
거래 건수 추이 거래 건수는 2021년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0건으로 감소, 2023년은 2022년 대비 절반인 1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24년 9월 30일 까지만 집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건으로 2023년보다 4건 증가하였으며 많은 수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지역 올해 6월 '젠틀몬스터'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압구정로데오에 이어 한남동 카페거리 메인 골목에 위치한 건물을 375억(대지 3.3m² 당 1.35억)에 매입하였다. 한남동 카페거리는 현재 압구정로데오와 성수동 상권에 이어서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부상중이다. 이 지역의 현재 시세는 대지 3.3m² 당 1.5억~2억원 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적은 매물과 급격한 매도호가의 상승으로 인해 직전 거래가격과의 갭이 커서 아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용산구에 집중된 호재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폭발적인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다면 한남동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한남동 거래분포도] 2023.4Q~ 2024.3Q 대지 평당가 / 거래금액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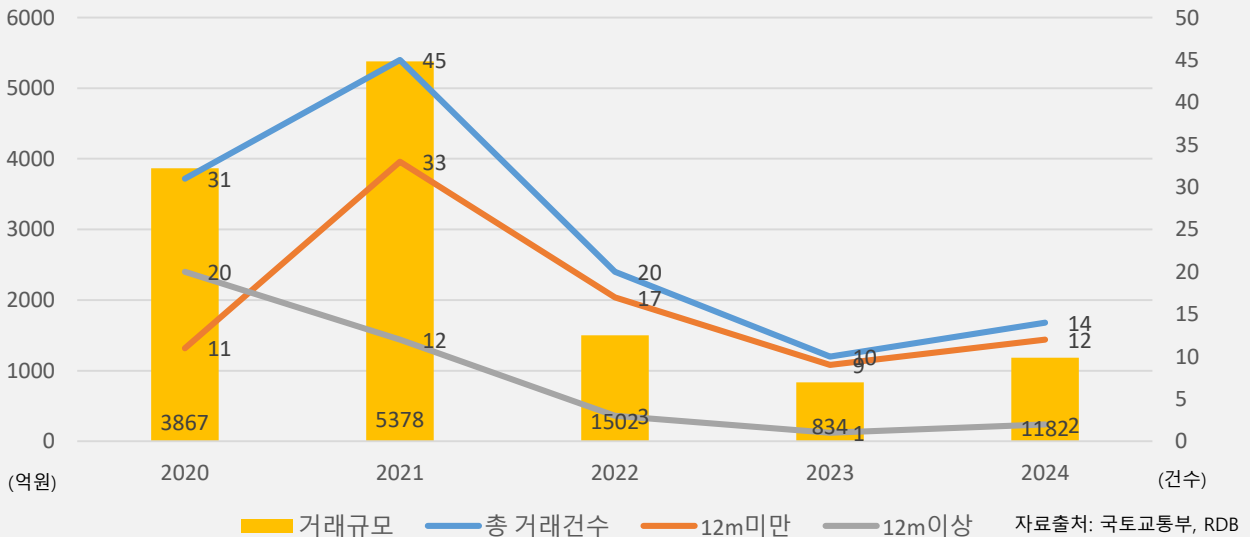
아래 거래 분포도는 2023.10.01~2024.9.30일까지 한남동 지역에서 거래된 매매사례를 조사한 자료이다.
거래 분포도를 보면 한남동 지역에서는 50~150억원 사이의 중소형 빌딩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대지 면적 50평에서 100평 사이의 빌딩이 활발하게 거래됨을 의미한다.

거래 분포도



[한남동 연도별 거래건수/거래규모] (12m 미만 이면 도로 / 12m 이상 도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저금리 기조 속에 빌딩시장의 호황과 나인원한남 입주 효과가 맞물려 한남동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거래건수와 거래규모 모두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한 빌딩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상가주택, 주택 용도 건물의 취득세 증가 및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 특히 한남동 지역의 경우 현 용도가 주택 또는 상가주택인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상권의 활성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거래 건수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번 사례] 한남동 카페거리 내 가장 성공적인 매입사례,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매입



대지: 920.3m²[278.39PY] / 연면적: 나대지 상태로 매각

매매금액: 3,750,000만원 [토지 평당 매매가격: 13,470만원]

거래일: 2024.06.07

매각포인트: 한남동 카페거리 메인 위치, 시세대비 저렴한 금액에 매각

조선내화주식회사에서 개발 목적으로 2021년 10월에 222억 7,120만원 (평당 8천만원)에 매입하였던 건물을 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에서 멸실된 상태로 2024년도 6월에 375억 (평당 1.35억)에 매입한 사례 최근 한남동 카페거리 내에서 가장 핫한 위치라고 생각하며 준공 후에는 한남동 카페거리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면도로에서 375억은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평당단가는 시세 대비해서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에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례이다.

[2번 사례] 한남동 카페거리의 가파른 지가상승을 보여주는 신축부지



대지: 213.88m²[64.7PY] / 연면적: 443.07m²[134.03PY]

매매금액: 980,000만원 [토지 평당 매매가격: 15,147만원]

거래일: 2023.06.27

매각포인트: 한남동 카페거리 내에 거의 유일한 명도 및 용도변경 가능 부지

2022년 4월 64억에 다가구주택으로 취득 후 2023년 6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98억에 매각한 사례이다. 평당 1.5억원 수준에 거래되었으며 한남동 카페거리 내에서는 B급지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된 부지라고 판단된다.

한남동 카페거리의 경우 상권이 조성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상당수의 건물의 상층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경우 매수자는 취득세 종과와 대출규제 등 매입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본 물건은 매입 후 용도변경만으로 큰 시세차익을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조사개요

지 역: 서울시 전 지역(총 25구) 주요 투자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대 상: 상업/업무
조 사 방 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ealtyKorea Data Base (총 120,999건) 자료 중 약 21,551건의 매각자료 분석
조 사 내 용: 2024년 3Q 부동산 ISSUE
중·소형 빌딩 거래분석
매입 유형별, 주체별 비율
중·소형 빌딩 거래 수익률분석
Hot place 거래사례 분석 [한남동]

중·소형 빌딩 조사 항목 분류 기준

빌딩 규모별: 소형빌딩/ 중형빌딩 (대지면적 100m²이상, 연면적 10,000m² 미만, 거래규모 10~1,000억)
자산 유형별: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 시세차익 및 개발 목적의 "투자형", 직접사용 목적의 "사옥형"
매입 유형별: 개인/ 법인
투자 규모별: 50억 미만/ 50~100억/ 100~200억/ 200억 이상 (중·소형 빌딩 기준, 10~1,000억)

※ 유 의 사 항: 매각 데이터는 RDB(RealtyKorea Data Base)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사례를 개별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됨. 이러한 작업의 특성 상, 데이터의 원시적 누락 및 시간 차에 따른 매각여부의 뒤늦은 반영이 불가피하여 데이터 취합 시점의 거래량 및 거래규모는 추후 업데이트 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조사 대상 제외 내용

- 집합건물/지분거래 제외

- **빌딩 매입 · 매각 컨설팅**
 - 매입·매각 컨설팅
 - Project Financing Brokerage
- **투자자문**
 - 부동산시장 분석 - 투자 사업성 분석
 - 부동산 개발 컨설팅 - 부동산 금융 컨설팅
- **임대차 & 리테일 서비스**
- **자산관리 서비스**
 - Property Management
 - Leasing Management
 - Facilities Management
- **벨루에이션 서비스**
 - 현재의 문제점 파악 - 지역분석 및 시장조사
 - 마케팅(리모델링/MD개편)전략 - 가치상승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선택.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리포트 문의

▶ 마켓리포트연구팀 | www.rkasset.co.kr | FAX. 02.512.7377

조용기 수석 010-9292-5209
 박대성 팀장 010-4242-1772
 권대영 팀장 010-9670-6037

이병관 수석 010-5270-8942
 이준희 팀장 010-6389-1674
 홍성현 팀장 010-4023-3692



Realty Korea Co., Ltd
#805, 801, Seolleung-Ro, Gangnam-Gu
Seoul, 06019, Republic of Korea
Tel : 02.512.8277
Fax : 02.512.7377
www.rkasset.co.kr

* 본 리포트의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는 본문에 수록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자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